

식물로 학교 미세먼지 줄인다고?

농진청, 오늘 도시농업연구회와 학술토론회 개최... 그린스쿨 조성 연구·원예교육 도입 방안 등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미세먼지 없는 그린스쿨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학교 환경 개선 연구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오늘 서울 양재동 AI센터에서 연다.

이 자리에는 도시농업단체와 민간 전문가, 농산업체, 교육전문가 등 농업, 의료, 교육 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그간의 연구 현황과 함께 정책 방안, 발전 방안 등 전문가 발표와 각 분야 대표들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식물의 미세먼지 저감과 그린스쿨 조성 연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박사) ▲미세먼지가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우아상한의원 정은아 원장)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원예교육 도입 방안(서울교대 객해란 교수)을 다룬다.

또한 ▲미세먼지 없는 그린스쿨 프로그램 운영(이은정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 ▲학교 미세먼지 저감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교육부 김태환 사무관)에 대해 발표한다. 전문가 토론은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도시농업 정책 방향(농림축산식품부 우미옥 사무관) ▲건강한 학교생활과 실내 공기 질(서울교대 부속 초등학교 김형석 교사) ▲그린스쿨 조성, 예산 및 유지관리((주)초록에서, 전태평 대표)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 환경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안전, 학습에 큰 영향을 준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에 따라 교실 미세먼지를 줄이고 환경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 안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수직정원을

꾸리는 그린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최근 도시농업연구는 실생활과 밀접한 학교, 근무지, 지역 등의 공간에서 환경 개선, 교육, 치유,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 복지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미래 세대인 학생 건강을 증진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업·교육·미세먼지를 줄이고 환경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 안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수직정원을

식품분석기술 '세계 최고'

식품연, 영국 식품환경연구청 주관 능력평가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최근 참여한 '2019 식품분야 국제공인 식품분석 능력평가 프로그램(FAPAS)'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성적으로 한국의 식품분야 분석기술 우수성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17일 식품연 식품분석센터 박지수 연구팀에 따르면, 영국 환경식품농림부의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고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국제적으로 제일 권위가 있는 식품분석 능력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능력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았으며, 마그네슘 등의 분석능력에서는 오차가 없는 최고 수준의 분석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화학 및 미생물학, 수질화학 및 미생물학, 환경화학 및 미생물학, 유전자 변형 등의 분야로 나누어 세분화 되어 실시하는 본 분석

능력 평가 프로그램(FAPAS)은 전세계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분석기관이 국제적인 분석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참석 중에 있다. 식품분야의 무기영양성분 분석 능력에 참가한 식품연은 평가 결과, 7개의 성분(마그네슘, 칼륨, 칼슘, 철, 인, 아연, 나트륨) 모두에서 평가 허용오차인 ±0.8 이내의 결과를 보여 인정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특히 마그네슘 분석의 경우, 표준값과 정확히 일치(오차 ±0.0)했으며, 칼륨 또한 ±0.3 이내의 오차를 보여 우수성을 입증했다.

김재호 산업지원연구본부장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센터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국제 수준의 분석능력과 전문성, 신뢰도를 바탕으로 국가 식품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 하마로마트, 김장

절임배추 사전예약 할인행사

농협(회장 김병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 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절임배추 사전예약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협 절임배추는 진안 부귀, 대관령, 화원, 경기, 안동, 순천 등 배추 생산지에서 정성껏 계약 재배한 국내산 배추를 활용하여, HACCP(식품위생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한 농협 김치공기실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예약 기간 동안 구입한 절임배추는 11월 14일부터 27일까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품목에 한해 KB·삼성·씨티카드로 결제할 경우 바스당 4천원을 추가로 할인한다.

농협하나로유통 관계자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를 안전한 원재료로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태풍 등 악천후 속에서도 농업인의 노력으로 생산한 우리 농산물에 많은 관심과 애용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이스타항공은 지난 16일 저녁 인천국제공항 114번 게이트에서 이스타항공 임직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정저우 신규취항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스타항공, 인천-정저우 노선 첫 운항

ZE853·854편... 신규 취항 기념행사도 가져

이스타항공이 지난 16일 오후 9시 인천에서 출발하는 인천-정저우 노선 첫 운항(ZE853)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16일 저녁 인천국제공항 114번 게이트에서 이스타항공 임직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정저우 신규취항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 신규 배분된 운수권 증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취항하는 정저우 노선은 국적 LCC로는 처음으로 취항하게 되어 항공이용자들에게 보다 탄력적인 운임을 제공해나갈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의 인천-정저우 노선 스케줄은 하계스케줄 기간인 오는 26일 까지 주4회 운항하며 동계스케줄 기간인 10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주 2회 운항한다.

정저우는 중국 무술의 발원지 소림사, 중국의 3대 석굴인 용문석굴, 중국의 그랜드캐니언이라고 불리는 태향산 등 다양한 문화 관광이 가능한 5000세대의 관광수요가 높은 곳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정저우 취항을 시작으로 장가계, 하이커우, 마카오, 화젠, 가오슝 등 다양한 신규취항을 통한 노선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집

중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는 "오늘 정저우 노선 취항은 중국, 대만 등 다양한 노선으로 다변화하는 첫 발걸음"이라며 "저비용항공으로서 단독으로 취항하는 노선인 만큼 기존 중국노선 운항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제주에서 출발하는 홍콩(주3회)과 마카오(주4회)노선에 오는 10월 27일부터 신규취항 스케줄을 확정짓고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및 모바일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김윤상 기자



하림, 익산로컬푸드와 지역 상생 직거래장터

수요 따라 매주 열릴 예정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이 익산로컬푸드(이사장 안중근)와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이날 직거래장터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내 10개 농가가 참여해 채소, 장국장, 순두부, 황금멜론, 인절미 등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농산품 가공품, 공산품을 판매하고, 당분간 격주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요에 따라 매주 열릴 예정이다.

박길연 대표이사는 "하림과 익산로컬푸드가 상생 관계를 유지하며 직거래장터를 재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임직원들과 지역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의 방향을 잘 잡아나갈 것"고 전했다.

안중근 이사장은 "직거래장터를 마련해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을 보이는 하림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김치, 반찬, 생필품 등 임직원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상생 협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주)하림은 지난 8월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생우수기업으로 뽑히고 있다. /익산=장인철 기자·장양원 기자

포용적 금융 실천·상호 협력관계 기반 상생 도모

전은, LH임대아파트 5개 단지 및 포괄적 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6일 LH임대아파트 5개 단지(전주 휴먼시아5·6단지, 남원 금동휴먼시아, 김제 교동휴먼시아, 정읍 농소주공)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임대아파트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과 포용적 금융(대출, 신용관리 서비스등)을 실천하고 상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6일 LH임대아파트 5개단지(전주 휴먼시아5·6단지, 남원 금동휴먼시아, 김제 교동휴먼시아, 정읍 농소주공)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시민헌수 동참

NH농협은행 전북본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16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김승수 시장, 푸른전주운동본부 정명운 대표, 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 홍종기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지속가능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조성사

업의 시민헌수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김장근 본부장은 "숲을 가꾸고 아름답게 조성된 쾌적한 도시에서 시민들이 힐링하며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올해 지역 주민들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주시를 포함한 도내 시군에 총 2억3천만원 상당의 무더위 그늘막을 기증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제특성상진흥원 본관 1층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창업공간.

'창업에 날개를 달아 Dream'

도경진원, 오늘 '청년 창업 드림스퀘어' 창업 공간 개소

전라북도도와 전라북도경제특성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오늘 경진원 본관 1층에 '전북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창업공간을 개소한다.

전북 청년창업 드림스퀘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2유형(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인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 예비창업자에게 사업과 지원금, 창업공간,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예비 창업자 34명은 2년 동안 초기창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2020년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년의 보육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형식으로만 지원하는 여타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드림스퀘어는 선정된 창업자를 계속지원 형태로 2년 동안 집중 육성한다는 특장점을 갖는다.

이번에 개소하는 드림스퀘어 창업공간은 총 11개실, 330㎡ 규모로 구성되어 12명의 입주자 가능하다. 개별 사무

공간 외에 협업공간, 오픈공간 등을 마련하여 창업자 간 끈끈한 유대감 형성과 협업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사업과 지원금은 총 2,300만원으로 1차년도 800만원, 2차년도 1,500만원이 지원되며,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외부유역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본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등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최근에는 비용 문제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면서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우리 지역의 건강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는 지역 내 창업자원의 지속적 발굴과 유기적인 네트워킹 체계 마련이 필수"라며, "드림스퀘어에 참여하는 창업자들이 2년의 육성과정을 통해 충분히 준비된 창업을 하고, 나아가 건강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하는 주체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